

# 자연재난 속에서의 기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 . . - 재난을 겪는 큰 역경 속에서 아버지께  
나아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그에 타당한  
죄값을 받는 것이기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와  
우리 민족이 지은 죄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됨으로써,  
심지어 이제까지 지구에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함으로써 이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심판 속에서 우리들 안에,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은 이들 안에 주의 성령을 통한 깨어남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징계하심은 오직 우리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손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이 역경의 시간에 주님을 모르거나 주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시며 이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선물에 대해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옛 삶에서 빠져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나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회개와 돌이킴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을 돌려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 이 큰 고난이 그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더 큰 매를 맞지 않도록 이 징계를 잘 감당케 도와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손 아래 지금 깊이 엎드리고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완전히 내어 드림으로서 주님과 의 하나됨이 강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 큰 역경 속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아멘.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만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애가 3: 32-33, 37, 39-40 하나성경